

## 왜 기쁨이 사라지셨나요?

(사도행전 16:30-40)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력한 초자연적 기적이 두 번 일어납니다. 첫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며, 둘째는 억울하게 갇힌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고 매여 있던 착고가 풀린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대목에 깊이 열광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적 세력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과, 간절한 기도와 찬송이 내 삶을 가로막은 고난의 문을 여는 초자연적인 무기가 된다는 역동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기적의 현장 그 자체보다, 그 직후에 이어진 사건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던 일촉즉발의 밤,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맞은 자리를 찢겨주었고,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곧바로 세례를 받았습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을 행하고 눈앞의 고난이 해결되는 기적만을 선호하며 바울의 능력을 내 삶에 대입하려 하지만, 정작 한 영혼과 그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사건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 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본질적이고 큰 기적입니다.

성경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마음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완료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래전 과거에 이미 내 안에서 은혜로 시작된

기쁨이, 현재의 삶을 관통하여 다가올 미래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나 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생명적 관계에서 터져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 그 자체가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조건은 결코 영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변함없으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은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던 사도였지만,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은 환경을 압도하는 '기쁨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과정을 보면 무고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 그 주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끌려갔으나, 재판정에서는 로마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허위 사실로 고발당했습니다. 바울은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군중 앞에서 옷이 찢겨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고, 온몸이 피떡이 되도록 매를 맞은 뒤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때가 되어서야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당시 로마법상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폭행하고 구금한 것은 엄벌에 처해질 중죄였으므로,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매질하고 구금한 무고한 자들과 상관들에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복이 바울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돈이나 식욕의 유혹보다 더 달콤하고 치명적인 '복수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을 때 당했던 억울함을 가슴에 칼로 갈아두었다가, 힘이 생겼을 때 나를 조롱하던 자들을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상상은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자극하는 쾌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도 일상에서 험담이나 뒷담화, 날카로운 비난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타인에게 보복을 감행하곤 합니다. 험담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특정한 한 사람을 고립시키는 무서운 무기이지만, 이러한 보복 행위는 상대를 파멸시키기 전에 내 심령을 가장 먼저 깨뜨립니다. 사도 바울이 보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의 크기가, 보복을 통해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복수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차갑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낼 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위문품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물질적 궁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인생과 사역은 세상의 물질, 명예, 환경이라는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짓지 않은 인생이었기에, 세상이 그것들을 전부 빼앗아가고 육체를 가둔다 한들 바울의 영적인 삶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의사 누가의 숨겨진 삶에서도 발견됩니다. 누가는 부와 명예가 보장된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바울의 선교 팀에 합류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문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 데살로니가로 떠날 때, 누가는 선교 팀과 동행하지 않고 빌립보 지역에 홀로 남겨집니다. 누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무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루디아의 가족, 간수의 가족,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은 무력한 여종으로 구성된 스무 명 남짓의 초라한 개척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누가는 신약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했는지 단 한 줄도 생색내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누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낭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생명의 고백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세상의 벽돌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어떤 형편에서든 기쁨의 능력을 발휘했던 바울의 기쁨,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쏟아부었던 누가의 거룩한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